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여덟번째)이 13일 서울시청에서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사랑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되다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3일 서울시장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 대표로 수상소감을 밝힌 김 에델트루트(독일) 여사는 지난 1975년 연세대 독어독문과 교수였던 남편을 따라 처음 서울에 오게 되었던 40여년전 '버스안내양'과 이름 없이 숫자로 불리던 '제1한강교' 시절부터 스마트도시로 발전된 현재의 서울까지 살아오며 느낀 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작고한 남편과 함께 사재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샘 지역아동센

터'를 설립하고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시민이 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겪은 다문화사회의 고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의 공존과 문화의 깊이를 더한 명예시민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 다양한 방송활동에 출연하며 서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방송인 수잔 사키야(네팔),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마크 테토(미국), △파비앙(프랑스) 등도 대사관 및 서울시민의 추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마크 테토씨는 서울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 해외반출 한국 문화재 환수 등 한국인보다 더한 한국 전통문화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명예시민의 날의 기념공연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가야금 3인조의 '아리랑' 반주에 맞춰 작년도 명예시민이자 음악감독인 라이언 계슬(미국)씨가 노래로 무대를 꾸몄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1958년 전후 도시재건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 '공로시민'을 수여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들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등에게 서울시정 발전 공로에 대한 보답과 우호협력 차원에서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8개국 853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서울경제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A35면 피플

외국인 18명 '서울시 명예시민'

서울시가 14개국 외국인 18명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예시민에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후원해온 김 에델트루트(독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언어 강사로 활동하는 결혼 이주여성 안나 쿠수마(인도네시아), 서울 생활을 책으로 낸 소설가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콜롬비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미국 출신 방송인 마크 테토와 네팔 출신 수잔 사키야를 비롯해 파비앙(프랑스), 레옹우옌민프엉(베트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해온 이들도 이름을 올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소외아동 후원’ 김 에델트루트, 서울 명예시민 됐다

시, 14개국 외국인 18명 선정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40여년 전 한국에 와 소외계층 아동을 도와온 독일인인 김 에델트루트(사진),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신 방송인 마크 테토(미국) 등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14개국 외국인 18명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에델트루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975년 연세대 교수였던 남편을 따라 처음 서울에 왔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



한 ‘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8억원 이상을 후원하고 작가 오정희의 ‘새’ 등 한국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는 “명예에 걸

맞게 앞으로 서울시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명예시민 명단에는 마크 테토를 비롯해 수잔 사키야(네팔), 파비앙(프랑스), 레 응우옌 민 프영(베트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등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외국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025면 PEOPLE

어서와 ‘서울시 명예시민’은 처음이지?

방송서 ‘서울 사랑’ 드러낸 파비앙·마크 테토 등 18명

파비앙, 마크 테토,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등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3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수여식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주한 오만대사(외교단장), 주한독일대사,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파키스탄대사, 주한캐나다대사 등 주한대사관 참석자 30명을 비롯해 기존 외국인 명예시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국내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방송인 △수잔 사



파비앙

마크 테토

키야(네팔)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마크 테토(미국) △파비앙(프랑스) 등이 이날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을 방문한 외빈인 △벨기에 국왕(3월) △덴마크 왕세자 내외(5월) △에스토니아 탈린시장(9월) △스페인 국왕 내외(10월) 등도 시민증을 받았다.

김경현 기자 kennyb@

방송인 수잔 사키야·마크 테토 등 외국인 18명에 서울시 명예시민증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겪은 다문화 사회의 고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의 공존과 문화의 깊이를 더한 명예시민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 다양한 방송활동에 출연하며 서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방송인 수잔 사키야(네팔·왼쪽 사진)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마크 테토(미국·오른쪽) △파비앙(프랑스) 등도 대사관 및 서울시민의 추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어 △김 에델트루트(독일) △응우옌 민 프영(베트남) △안나 쿠수마(인도네시아)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콜롬비아) △왕육성(대만) △알프레드 하르트(독일) △하르트무트 코썩(독일) △마르다리 타티야나(몰도바) △콜롬 플라나간(아일랜드) △리 미하엘라(체코) △앤드류 임(캐나다) △무스타크 마지드(파키스탄) △아만 올라(파키스탄) △벤자맹 로앙 주아노(프랑스) 등이 포함됐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시 명예시민 축하해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이날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외국인 참석자들과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들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수 등 지금까지 총 98개국 853명이 선정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김 에델트루트 명예교수 등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문화일보 | 2019.11.14. | 네이버뉴스 |

40여 년 전 남편을 따라 서울에 온 뒤 사재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독일 출신의 김 에델트루트(80·사진 왼쪽) 미화여대 명예교수 등 14개국 출신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 "소외 아동 후원" 김 에델트루트, 서... 세계일보 | 2019.11.14. | 네이버뉴스



[\[포토\] "서울시 명예시민 축하해요"](#)

헤럴드경제 | 10면 1단 | 2019.11.14. | 네이버뉴스 |

지난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이날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외국인 참석자들과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기념촬영을...

▷ "서울시 명예시민 축하해요" 헤럴드경제 | 2019.11.14. | 네이버뉴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식서 빛난 '마리랑' '애국가'](#)

노컷뉴스 | 2019.11.14. | 네이버뉴스 |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명예시민의 날'은 지난해 명예시민이 된 미국 출신 라이언 계슬에 이목이 집중됐다. 음악감독인 라이언 계슬은 깊고 웅장한 바리톤으로 축하공연곡 마리랑과...



[서울시민 됐어요](#)

내일신문 | 2019.11.14.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14개국 18명 외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명예시민 증은 교육과 문화 교류,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서울...



[서울 사랑 돋보인 18명 외국인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일요서울 | 2019.11.14. |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에 임명된다. 서울시는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뉴스1 | 2019.11.13. | 네이버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서울시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김 에델트루트(Kim Edeltrud, 독일) 여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작고한 남편과 함께 사재로 소외계층...

▷ [사진] '2019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 뉴스핌 | 2019.11.13.

▷ [사진] 박원순 시장과 명예시민 김... 뉴스핌 | 2019.11.13.

▷ 서울시 명예시민 된 김 에델트루트... 뉴스1 | 2019.11.13. | 네이버뉴스

▷ 김 에델트루트 여사 '서울시 명예시... 뉴스1 | 2019.11.13.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5건 전체 보기 >



[파비아, 마르테토, 크리스티안 명예서울시민 된다](#)

머니투데이 | 25면 1단 | 2019.11.13. | 네이버뉴스 |

파비아, 마르테토, 크리스티안 등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3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는...

▷ 서울시, 14개국 18명 외국인 '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 2019.11.13.

▷ 서울사랑 돋보인 외국인 18명, '명예... 뉴시스 | 2019.11.13. | 네이버뉴스

▷ 서울 사랑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파이낸셜뉴스 | 2019.11.13. | 네이버뉴스

▷ 서울 사랑 돋보인 18명 외국이 '서울... 분교공뉴스 | 2019.11.13.